



# “U-홈네트워크 전문회사” KOCOM

"설립 후 계속적으로 쌓아온 독자적인 노하우를 기반으로 21세기 편리하고 안전한 Home Network System사업에 주력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글로벌 마케팅 강화에 핵심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디지털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 코콤의 제품들은 곧 품질보증이라는 사명감으로 고객만족에 정성을 다하는 기업, 성장 잠재력이 크고, 경쟁력 있는 건강한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0여년 동안 세계 70여개국에 대한민국의 digital 영상기술과 통신 네트워크를 널리 수출하여 국내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협회 회원사가 있어 소개한다.

코콤(대표 고성욱)이 그 동안에 쌓아온 독창적인 기술로 홈네트워크 전문기업으로 주력 사업을 전환한다. 코콤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제까지 인터폰·비디오폰 등 홈오트메이션 주력에서 올해를 기점으로 방범·방재·가스·가전제어 등 고부가 기능을 지원하는 홈네트워크로 주력사업 전환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

코콤은 유무선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출시, 기축 및 신축 건설시장을 공략하고 지방 대리점망도 확대해 올해 800억원 정도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100여개국에 공급돼 있는 인터폰을 홈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해외 수출 확대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콤은 1등 기업, 1등 제품을 만드는 것이 올해 목표라며 "홈네트워크 시장의 가격경쟁이 치열하지만, 30년간의 노하우와 기술력, 인지도를 앞세워 선도기업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콤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 비디오폰(KCV-356/346)

산업자원부가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계 일류상품'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시행되는 세계 일류상품제도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위권인 제품을 지정해 기술 및 디자인 개발, 금융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광대역통신과 무선통신을 이용해 가정의 전자기기들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으로 10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러한 정부지원을 통해 산자부로부터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출실적제고를 기대할 수 있어 코콤의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홈네트워크 제품군중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제품으로는 KHN-880 시리즈로 이 제품은 홈네트워크의 모든 기능을 한눈에 보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최첨단 홈네트워킹 제품으로 신축건물이나 아파트에 많이 적용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10인치 TFT LCD를 장착한 것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의를 위한 터치스크린방식의 GUI를 채택하여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가스밸브 제어, 조명 제어, 난방기기 제어, 커튼 제어뿐만 아니라 복잡한 정보가전기기 제어까지 가능하여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 준다. 여기에 방법/방재 센서, 방문자 정지영상/동영상/음성녹화, 세대 모니터링 (홈 뷰어), 출동경비 연동, 비상상황 자동통보 등과 같은 홈 시큐리티 기능과 세대현관, 공동현관 방문자 확인 및 영상통화, 세대와 경비실/관리실간 상

호호출 및 영상통화, 단지 내 세대간 상호호출 및 영상통화, 전화 발신 및 수신, 무선전화기 연동, 옥실폰/서브비디오폰/주방TV비디오폰 연동이 가능토록 한 홈 커뮤니티 기능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는 첨단제품으로 관련분야의 발전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감동서비스는 코콤의 의무입니다"라는 모터아래 실시간 100%고객만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8개 A/S 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의 A/S 본부를 중심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빠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 홈네트워크(KHN-880시리즈)

회사관계자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영네트워크 구축", "R&D 강화 및 인재양성", "마케팅 중심의 회사"를 경영이념으로 삼아 모든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고객과 주주, 임직원 모두를 만족시키며 다가오는 디지털세상에 선두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코콤의 장기비전이라고 했다.

코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Home Network를 통해 보다 손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Ubiquitous Life의 기초가 되는 Digital Home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할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는 홈네트워크 기술의 선두주자로 성장할 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제품생산으로 대한민국 대표기업이 될것으로 기대된다.